



# 행동 둔해지고 무기력·빙글빙글 돌기까지 하면...



## 내분비질환 ③갑상선 기능 저하증

개에서 발생률 높고 7-8세 가장 많아  
탈모·농피증·지루성피부염 등 증상  
의심증상 보이면 진단 후 치료 시작

개의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과 당뇨병에 이어 개에게서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중 하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본다.

갑상선은 목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비모양의 내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 열산생 작용(산소소비량 증가), 성장호르몬의 생산 및 이의 기능발현에 깊이 관여해 성장과 분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대사 작용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갑상선의 이상은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상선 질병은 위축에 기인한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갑상선 종양이나 이외에도 많은 질병이 알려져 있다. 갑상선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강아지들 중 절대다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된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장애로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떨어져 지질대사의 조절, 탄수화물의 소화관흡수 등과 같은 각종 대사 작용의 기능저하로 행동과 사고가 활발하지 못하고 또한 내분비성 탈모가 일반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으로는 90% 이상이 여포를 3/4이상 상실하는 갑상선 자체의 위축 또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의 저하에 기인한 원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다. 그 외에 뇌하수체의 파괴 등에 의한 분비장애에 기인한 2차성, 갑상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의 분비장애에 의한 3차성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 선천적으로 태생기 또는 생후 얼마 되지 않아 갑상선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로 크레틴증, 그리고 성장 후의 경우는 점액수종 등이 있다. 원인으로는 만성 갑상선염, 갑상선암, 항갑상선제의 복용, 요오드의 섭취부족 등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개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7-8세에서 가장 많다.

증상으로는 탈모, 불량한 피모, 농피증, 지루성피부염을 포함한 피부 이상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개의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소양감 및 염증이 대개 없다. 하지만 지루증이나 2차갑염이 있으면 소양감을 보이기도 한다. 탈모는 꼬리와 목 부위에 먼저 나타나고 몸통에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르며 따라 전신탈모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졸음증이 심해지고 살이 찌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정상보다 심장박동수가 내려가며, 서맥이 흔하게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진행이 되면 행동이 둔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추위에 민감하며, 이 질병에서 수반돼

나타나는 2차적인 고지혈증은 고혈압성 망막증, 망막과 각막접합부의 지방침윤과 같이 눈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이상이나 국소나 전신의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운동실조, 눈떨림, 빙글빙글 돌기, 뇌신경의 결합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중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져 올 수 있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당뇨병, 지방간이나 간종양 등과 같은 갑질환과 신장증 및 고지방식으로 인한 질환 등과 혼동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에스트로젠 분비 감소와 항진 같은 난소이상과 범하수체 기능 저하증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진단은 몇 가지 혈청검사로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며 대부분은 일생동안 지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료시작 1-2주 이내에 활동과 태도에서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체중도 감소하기 시작하며 신경증상 역시 며칠 이내에 개선되기 시작한다. 피부증상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예방은 따로 없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빠른 시간 안에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 영화觀

### 가능한 변화들

많은 대화에서 백신이 화두가 되는 요즘이다.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너희 부모님 백신 맞으셨니 어머시니'를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럴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의 남성이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 그렇게 됐다. 마흔이 돼 갑자기 몸이 아파졌고 독립생활 2년 여 만에 다시 병원을 거쳐 부모님의 동거인이 됐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건강이 회복돼 홀로 사는 나의 집과 함께 사는 부모님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혼자서 살 자신도 생각도 없어져 버렸다. 그 이유는 내가 부모님과 함께 늙어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서다. 아버지가 발일을 하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때 나는 그저 거드는 정도인데 곁에서 거드는 시간이 거듭되다 보니 조금 더 자세히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고 하는 흔한 곡 소리, 골골 대며 잠을 잔다는 것을 어슬피 증명하는 밥의 소리, 콩 하고 몸을 일으키고 누이는 파열음을 담은 의태어. 그 소리들로 나는 매일 실감한다. 내가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 가는 사이 부모님은 조금씩 더 빠르게 늙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소리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의 곁에서 거드는 편을 선택하기로 했다.



영화 '더 파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5세의 대배우 안소니 홉킨스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더 파더'는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다 큰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극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치매 환자인 당사자의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덕분에 망각의 공포가 정말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작품이다. 관객에게는 마치 미스터리 장르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구성은 모든 것이 뒤엎겨버린 이의 절망을 보는 이의 턱 밑까지 들어민다. 내가 아는 당신도 당신이 아는 나도 당신이 아는 당신도 없는 순간이 영화 내내 반복된다. 이 영화의 후반부쯤에서 나는 몸도 마음도 거의 탈진해 버릴 정도였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간호사 분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중환자실에서 가장 힘든 환자는 정신이 멀쩡한 환자에요.' 정말로 그랬다. 곳곳에서 나오는 비명과 울음 소리,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몸의 감각들이 여실이 느껴질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파더'의 안소니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땀이 오기 옷깃을 찡겨 입을 단정한 노인이고 오페라 음악을 헤드폰을 끼고 듣는 조심스러운 애호가다. 그가 사는 집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그의 자식은 사려 깊고 친절하다. 누가 봐도 부러울 수 있는 노년에게 치매란, 무엇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재난에 가깝다. 닥쳐버린 재난을 수습하는 일 또한 어렵고 고되다. 유한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가해한지를 보여주는 '더 파더'에는 정답도 기적도 없다. 다만 스스로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대화인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투병했던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이화열 작가의 책 '치지 않는 하루'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세월이 앓아가는 것들에 대한 대가로 사물과 존재의 불안정함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을 준다면 그건 꽤 공평한 거래 같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나 또한 그 절망의 초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관객에게는 마치 미스터리 장르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구성은 모든 것이 뒤엎겨버린 이의 절망을 보는 이의 턱 밑까지 들어민다. 내가 아는 당신도 당신이 아는 나도 당신이 아는 당신도 없는 순간이 영화 내내 반복된다. 이 영화의 후반부쯤에서 나는 몸도 마음도 거의 탈진해 버릴 정도였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진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오우브먼트 대표>

참치향에서 참치요리의 아우라를 느껴보세요

# 제주 1등 참치!!

혼자서도 즐길수 있는 바~ 가족 연인 모임을 위한 다양한 룸~  
깨끗한 시설과 최고의 참치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참치향

참치 전문점

**시원한 여름메뉴 참치물회 개시**

**점심단품특선**

참치 초밥 15,000	참치회덮밥 8,000
대구 지리 8,000	알 탕 10,000
대구매운탕 8,000	

**저녁 회코스 메뉴**

VIP 95,000 진 70,000 선 55,000 미 35,000

제주시 노형동 719 | 예약 064-745-8808 | 매주 일요일 휴무